무등경기장에 '민주광장' 추진

광주시 용역 발주 … 야구장은 제3의 장소에 신축

광주 무등경기장 부지에 '민주광장'을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3의 장소에 최첨단 야구장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는 지난해 말부터 무등경기장 부지 활용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이 곳에 민주광장을 조성할 방침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국유지인 무등경기장 부지와 국립 5·18 민주묘지, 광주 정부통합전산센터 등 시 소유부지 2곳을 맞교환하는 절차가 이달 중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제3의 장소에 신규 야구장 설립 및 민주광장 조성 등이 가시화되고 있다.

시는 이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열고 '무등경기장 부지 활용 민주광장 조성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 용역'을 발주키로 했다.

시는 그 동안 8만5천10㎡ 무등경기장 부지에 한국민주주의전당 유치 또는 인권센터 설립, 광주천과 연계한 공원 조성 등을 검토해왔으며, 이번 용역을 통해 민주광장에 들어설 건축물이나 녹지공간 구성 등의 안을 마련, 국비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3의 장소에 들어설 야구장 설립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현재 무등야구장은 지난 1965년 설립, 시설 노후로 인해 매년 보수 및 정비가 되풀이돼 왔으며, 정부가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유치에 나서면서 국비 지원이 확대될 경우 야구장 신축 역시 빠른 속도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 관계자는 "야구장을 신축 장소와 사업방식 등에 대한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며 "오는 21일 야구장 신규 설립 논의를 위해 광주와 함께 야구장이 오래된 대구시 및 대전시 관계자와 함께 한국야구위원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토지감정평가에서 북구 임동 무등경기장 국유지 8만5천10㎡의 가치가 274억 원, 시 공유재산인 국립 5·18민주묘지 16만9519㎡, 서구 풍암동 광주정부전산센터 3만3805㎡가 각각 166억 원, 76억 원으로 확정되면서 32억 원을 추가 지급해 소유권 이전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적조 발생땐 양식장 물고기 방류

전남도 피해 줄이기 … 희망 어가 보상 실시

전남도가 7~9월에 주로 발생하는 적조에 대비해 적조 피해가 발생하기 전 양식장의 물고기들을 바다로 방류하는 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한다.

전남도는 16일 매년 적조로 발생하는 양식장 물고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류 대상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용역 조사에서 방류의 경제적 가치와 타당성이 인정된 볼락, 참돔, 감성돔, 돌돔 등 4개 어종 가운데 몸길이가 8㎝ 안팎인 1년생 어린 물고기다.

적조가 발생하면 현재로서는 황토를 바다에 뿌리는 게 유일한 구제책인데, 이는 황토를 낭비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또 양식장 물고기들이 폐사되도록 놔두는 대신 바다로 내보내는 게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어족 자원을 늘릴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도는 우선 6월께부터 양식장이 많은 완도와 여수를 중심으로 올해 적조 피해 발생 시 물고기 방류를 희망하는 어민들을 모집, 지역 수산사무소에서 이들의 양식 규모와 성장 상태 등을 조사해 방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는 물고기를 방류하는 양식업자에게 1마리당 500원씩 수입 감소분을 보전해 주기로 하고 올해는 100여만 마리를 방류할 수 있는 5억2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도 관계자는 "양식 물고기 사전 방류 사업 등 올해 적조 피해 예방에 모두 18억2천만원을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자치행정홍보박람회 '2009 광주·전남 자치행정 홍보박람회'가 16일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된 가운데 시민들이 행사장을 둘러보고 있다. 오는 19일까지 계속되는 행사에는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전남도와 8개 시·군 등 광주·전남지역 30여개 기관이 참가해 기관별 우수시책과 혁신 성과 등을 홍보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문화전당 공사 중단 더 이상 안된다"

광주전남 문화연대·미래 교수모임 공사재개 촉구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 논란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그러나 지역 사회에서 별관 철거 찬·반 논란만 확산될 뿐 상생 해법을 찾기 위한 협의체 구성 등 구심점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 소모적인 논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전남문화연대는 16일 광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의 미래를 위해 아시아문화전당 공사가 더 이상 중단되면 안된다"며 "광주시민이 29년 전 그랬듯이 하나가 돼 문화중심도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대 불문과 류재한 교수 등으로 구성된 '광주의 미래를 생각하는 교수의 모임' 교수 176명도 같은 날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문화전당 건립공사 재개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광주를 미래형 문화·경제도시로 탈바꿈시키는 국책사업"이라며 "도청 별관 존치를 주장하며 농성하는 주체들도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존중해 하루빨리 이 문제를 매듭짓고 건립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최 협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은 "별관과 관련해 찬·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문화전당 공사 정상화가 전제되지 않는 소모적인 논란은 광주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다 지난해 6월부터 불거진 별관 철거 논란으로 공정이 일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종두

언제봐도 빈깡통은 시끄럽다

520년 된 광주향교 東齋 헐린다

市 1억여원 들여 원형 그대로 보수

지난 1488년 건립된 광주의 대표적인 고건축물인 광주향교 동재(광주시 유형문화재 제9호)가 완전 해체된다. 520여 년 동안 무거운 기와로 인해 건물 한쪽이 가라앉는 등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자 광주시가 1억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이를 해체해 원형 그대로 전면 보수키로 한 것이다.

시 문화재위원회는 16일 회의를 갖고 당초 부분 해체 보수를 검토해왔던 광주향교 동재를 완전 해체 보수키로 했다.

광주향교에는 명륜당, 동재, 서재, 문회재, 대성전, 내선문, 외선문 등 모두 18개의 고건축물이 있으며, 지금까지 부분적 보수를 계속해왔으나 이 같은 전체 해체 보수는 처음 있는 일이다.

시 관계자는 "동재를 그대로 둘 경우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내려져 전체 해체 보수로 변경했다"며 "원형을 그대로 살려 보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올해 모두 13억 원을 투입해 이장우 가옥, 양과동정 등 유형문화재·기념물 30곳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여수박람회 조직위 '여수사무소' 연다

지역 여론 수렴 위해 5월 중 개소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원활한 현지 준비를 위해 여수박람회 조직위 여수사무소가 내달 문을 연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김병일 사무총장은 16일 "지역여론을 원활히 수렴하기 위해 5월 중에 여수사무소를 개소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전남 여수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역민들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5월 중에 직원 1~2명을 여수로 파견해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건물 내에 여수사무소를 개소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내년에는 조직위원회 직원이 여수로 많이 내려와야 한다"며 "내년에는 별도의 여수사무소를 임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총장은 건강상 이유로 사퇴한 장승우 조직위원장 후임 문제와 관련해 "신임 조직위원장은 2012년 박람회 개최와 사후 관리 때까지 앞으로 4년간 중단없이 위원장직을 수행할 분을 선출해야 한다"며 "영업력과 창의력을 갖춘 분이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또한 "인구 30만명인 여수시에 대규모 공연장이 2개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담양·장성 딸기 사업단

광역클러스터 지원 선정

담양과 장성군의 '딸기 신산업 클러스터 사업단'이 농림수산식품부 광역 클러스터 사업 지원대상에 선정됐다.

또 무안은 녹색한우 명품화 클러스터 사업 대상으로 지정됐다.

16일 농림수산식품부와 담양군에 따르면 지역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구축해 차별화된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농림수산식품부의 광역클러스터 사업에 담양·장성 딸기사업단이 선정돼 앞으로 3년간 63억원을 지원 받는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한정승인공고

밤 이 재 팔(590921-1182713)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에 관한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사건번호:서울가정법원 2008느단 11398
공 고 인:박 정 자
한정승인수리일:2009. 1. 14
공고기간:2009. 4. 17~2009. 6. 16
연 락 처:전남 함평군 함평읍 가동리 161
박 정 자 (061-322-9424)

투자자모심
- 월2부 수익금지급
- 확실한 담보130%
- 안전보장,수익보장,비밀보장
- 최소 5,000만이상 투자가능

서강파이낸셜 ☎062)653-7500

光州日報 광고접수안내
구직 · 운전 · 모집 · 초빙
영업 · 모임 · 매입 · 매매
임대 · 전세 · 부동산
이메일: design@kwangju.co.kr
• 직통:(062)227-9600
• FAX:(062)227-9500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홈페이지 www.ins.hs.kr
반갑다! 친구야
• 일 시 : 2009년 5월 16일 토요일 저녁 6시
• 장 소 : 광주 인성고 모교 실내체육관
• 참석대상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생
옛 20년전 은사님
광주 인성고 총동문회 임원 이사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 위원장 : 강천규 TEL : 011-614-0898
최성훈 TEL : 011-611-0442
송상훈 TEL : 010-7755-2753
※ 졸업 20주년 행사 추진과정은 홈페이지를 참고 바람

광주 인성고 총 동문회 가족 한마당 체육대회 알림
홈페이지 www.inseong.or.kr
• 일 시 : 2009년 5월 17일 일요일 오전 9시
• 장 소 : 광주 인성고 모교 운동장
• 1부행사 : 축구, 배구, 족구, 줄다리기, 400m계주
• 2부행사 : 춘향가두공연, 각기두 장기자랑, 레크레이션
• 특별행사 : 가족대항게임, 행운권추첨, 어린이미술사생대회
※ 광주 인성고 총 동문회장 : 박 형 욱
※ 광주 인성고 총 동문회 사무실 연락처
062)603-3833

SDL 인재개발 아카데미 전문 강사양성

SDL 인재개발 아카데미는 전문 서비스 강사 양성과정이란?
"여성 1인 1기업 여성창업 스쿨을 통한 100% 에스디엘(주) 사내강사 취업보장" 으로 청년 실업난과 여성전문 인력개발을 통한 기회의 장을 마련함으로서 SDL 인재개발 아카데미 교육 이념을 실천하는 기업입니다.

수강접수에서 취업까지 ONE-STOP!

모/집/요/강
1. 모집분야 : 교통친절서비스분야, 사회복지분야, 스피치교육전문강사, C.E.O이미지메이킹분야, C.E.O여성리더쉽강사, C.S강사, 현장모니터링 전문강사, 관공서교육
2. 모집인원 : 20명(선착순)
3. 자격조건 : 나이-23~37세 학력-초대졸이상
4. 신체조건 : 162cm이상, 용모단정한 분으로 긍정적 마인드와 진취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
5. 교육기간 : 1차 교육 - 2009.05.01 ~ 07.31(서비스 강사 기본과정)
2차 교육 - 2009.09.01 ~ 11.31(서비스 전문화 기본과정)

• 신청접수 : 2009. 4. 13(월)~4. 30(목)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480-15 동광주웨딩프라자 4F)
• 서류전형 : 1차 -서류접수, 2차 - 면접
• 전문강사 양성을 위하여 서류 전형후 면접통과자에 한하여 수강신청 됩니다.
• 전화문의 : 062)373-0650, 374-0650 황수정 팀장

에스디엘(SDL)? Self Directed Learning
한국기술교육원 평생교육센터
부설 에스디엘 인재개발아카데미